

---

---

# 조선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을 중심으로 -

---

---

김 경 란  
(안동대학교)

---

머리말

I. 20세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분포현황

II. 대구부 同姓마을 형성시기의 추이

III. 同姓마을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NRF-2015S1A5B5A02016587).

● 투고일: 2016. 8. 5.    ● 심사일: 2016. 8. 17.    ● 게재확정일: 2016. 9. 7.

www.kci.go.kr

## 요약

이 글은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의 기록을 토대로 同姓마을이 형성되는 시기와 그 과정에 주목한 연구이다.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와 과정에 대한 분석 작업은 性理學的 이념에 입각한 父系的 친족질서가 조선사회에 확산되는 시점 및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상도 대구부 지역의 동성마을 형성시기와 그 과정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同姓同本 집단의 거주가 시간이 경과될수록 동성마을로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 지속적인 集居를 통해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던 姓貫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집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사라지는 성관들도 발견된다. 셋째, 한 마을에 2개 이상의 성관이 공존하면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20세기 전반 무렵 대구지역에 분포했던 동성마을 중 적지 않은 수가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형성된 것이었고, 그 이전인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에 형성되었던 동성마을은 대부분 양반마을이었으나 일부 평민 동성마을도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대구부의 동성마을은 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형성된 마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평민 동성마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동성마을이 조선후기 부계적 친족질서의 최종적 귀결점이라는 일반적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대구부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성리학에 입각한 가부장적 부계질서가 뿌리내린 시점이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적 이해보다

### 조선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더 늦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대구부 지역의 경우에는 동성마을이 급증하고, 평민층도 동성마을을 형성했던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전반기에도 여전히 부계적 친족질서가 강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조선후기적 가치인 가부장적 친족질서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주제어 : 同姓마을, 호적대장, 集居, 父系, 姓貫

## 머리말

조선의 친족질서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17세기를 기점으로 内外親이 망라되는 兩系的 親族秩序에서 嫡長子 중심의 父系的 親族秩序로 변화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혼인형태에서 유교적 요소의 강화, 적장자 중심의 남녀 차등상속, 장자 단독 奉祀, 부계혈연을 중심으로 門中の 결성과 同姓마을의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성마을은 조선후기에 강화된 부계 혈연 중심의 문중이 그들의 사회적 지배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부계 혈연의 중심점이었던 동성마을은 부계적 질서가 강화될수록 증가되었으며, 조선후기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마을의 형태로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동성마을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이래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한국의 보편적 마을 형태였던 동성마을은 한국 전통사회의 특질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매개체이다. 이는 동성마을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동성마을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부장적인 부계친족질서의 확립에 따르는 동성마을 내의 양반 조직과 문중 활동의 구명에 주안점을 둔 경향이다.<sup>1)</sup> 또 하나의 경향은 동성마을의 형성과 발달, 사회적 기능을 밝힘으로써 향촌지배구조의 변화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sup>2)</sup> 최근에는 동성마을에서의 嫡庶의 분리, 평

---

1) 이수건, 1990, 「良洞의 역사적 고찰」, 『良佐洞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해준, 1996, 「동족마을의 형성과 조직」,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민 동성마을의 형성 등에 대한 문제로까지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sup>3)</sup> 그러나 동성마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兩班村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平·賤民이 거주했던 民村의 동족적인 기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반촌에 대한 연구 자료가 풍부한 반면, 평·천민이 거주했던 민촌에 접근할 연구 자료가 소략한 것이 그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동성마을의 구체적 면모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양반촌 뿐만 아니라 민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전산화되고 있는 戶籍大帳을 동성마을 연구자료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호적대장은 소 주민을 망라하는 지역단위의 장부로, 3년에 한 번씩 작성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일률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내의 주민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구기록이다. 따라서 여러 세기에 걸친 주민들의 주거형태를 확인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동성마을 형성의 시기별 추이를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상층인 양반 뿐만 아니라 중·하층인 평·천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주거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마을 연구의 자료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의 전산화자료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sup>4)</sup> 대구부가

- 
- 2) 정진영, 1998, 「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조선시대향촌사회사』, 한길사.
  - 3)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4)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전산화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완료된 전산화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은 현존하는 호적대장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밝혀지지 않은 조선후기 동성마을에 대한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소재해 있었던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동성마을이 가장 많이 분포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성마을의 형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구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의 기록을 토대로 우선 동성마을이 형성되는 시기와 그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성마을의 특질 및 역사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성시기의 문제 이외에도 구명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가 많다. 그런데 동성마을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시기를 검토하는 작업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부계적 가족질서가 조선사회에 확산되는 과정 및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동성마을의 분화, 양반촌과 민촌의 차별성, 동성마을 내의 혈연관계 등 동성마을 연구에서 필요한 여타의 연구주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형성시점 및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은 경상도 대구부의 동성마을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 I. 20세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분포현황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식민지조선에 대한 다양한 기초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의 村落과 姓氏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30년대 조선의 촌락은 28,336개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4,672개가 동성마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사업을 주도한 일본인 학자 善生永助는 동

---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성마을의 개념을 ‘동일 선조에서 나온 同本同姓이 사람들이 한 부락 또는 한 지방에 집단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성마을의 기준으로 ‘① 한 부락가운데 거의 전부의 家戶가 한 동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② 몇몇 부락에 걸쳐 동족의 戶數가 집단되고 있는 경우, ③ 두 성씨 이상의 동족이 중심이 되어 부락을 이루고 있는 경우, ④ 한 부락 가운데 다수의 동족호수와 소수의 동족외 戶數가 인접하여 介在하고 있는 경우, ⑤ 한 부락가운데 약 반수정도나 그 이상이 他姓인 경우’를 제시하였다.<sup>5)</sup>

이후 동성마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동성마을에 대한 개념규정과 분류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sup>6)</sup> 동성마을에 대한 개념규정과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준은 인적 구성의 문제이다. 즉, 특정 姓貫이 마을 내에서 타 성관에 비해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마을 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마을의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우위 뿐만 아니라 族的인 기반하에서 다양한 문중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血緣的 集居는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성마을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혈연적 집거를 이룬 마을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사를 통해 조선의 많은 마을에 특정 성관이 집거하는 현상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조

5)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 後篇, 조선총독부, 459~516쪽.

6) 동성마을의 개념과 분류기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성과가 참조된다.

이해준, 1996, 『조선시대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285쪽.

정진영, 1998, 앞의 논문, 305~306쪽.

오영교, 2004, 『강원의 동족마을』, 집문당, 19-23쪽.

권내현, 2010, 앞의 논문, 3쪽.

사는 한 마을에 특정 성관이 1할 이상 거주하면 모두 동성마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동성마을의 숫자가 너무 많이 과약되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20세기 전반 동성마을의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사결과와 조선후기 호적대장을 통해 파악되는 동성마을의 분포실태를 대비함으로써 동성마을 형성시점 및 강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20세기 전반의 동성마을 분포현황을 검토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성마을이 분포한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경상북도는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대구부가 위치한 곳으로 1,901개의 동성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북도의 동성마을의 구체적인 분포현황은 다음의 【표 1】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 1930년대 경상북도 동성마을 현황<sup>7)</sup>

郡名	동성마을 수	郡名	동성마을 수	郡名	동성마을 수
달성군	113	의성군	121	청송군	58
영덕군	40	경주군	135	경산군	81
고령군	43	칠곡군	73	선산군	85
문경군	84	영주군	58	울릉도	5
군위군	76	안동군	183	영양군	32
영일군	94	영천군	122	청도군	67
성주군	82	김천군	114	상주군	121
예천군	72	봉화군	39	합계	1,901

【표 1】은 1930년대 당시 경상북도 지역에 분포한 동성마을을 郡별로 파악한 것이다. 동성마을이 100여개 이상을 상회하는 지역은 달성군, 의성군, 경주군, 안동군, 영천군, 김천군, 상주군 등 7개 군이다. 이 글에서

7) 善生永助, 1933, 앞의 책, 513~516쪽.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대구부의 농촌지역은 1930년대 당시 행정구역이 대부분 달성군에 속해 있었다. 대구부는 경상도의 監營이 설치된 조선후기의 주요한 행정도시로써 宣祖 34년(1601) 慶常監營의 설치 이후 경상도의 행정중심지로써 발전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갔다. 또한 평양, 강경과 더불어 조선후기 3대 상업도시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상업 중심지로써 기능했던 곳이다. 따라서 대구부는 어느 지역보다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감영이 소재한 중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전형적인 농촌지역도 포괄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13도제 아래 대구부는 도시지역의 대구부와 농촌 지역의 달성군으로 분리되었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조선후기 대구부의 농촌 지역은 일제 강점기 이후로는 대부분 달성군에 해당된다.<sup>8)</sup>

달성군에 분포한 동성마을의 수는 113개로 경상북도 내에서도 동성마을이 많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달성군의 동성마을은 총 113개로 조사되었지만 동성마을의 지명과 성관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곳은 대략 60여개 마을이었다. 다음의 【표 2】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를 통해 볼 때, 달성군에서는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 다시면, 구지면에 동성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3개 면은 조선후기에는 대구부에 속했던 지역들로써 감영이 소재했던 동상면과 서중면으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하였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sup>9)</sup> 또한 이 지역들은 동성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했을 뿐 만 아니라 동일 성관이 100호 이상 거주한 대규모의 동성마을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달성군에서 동일 성관이 100호 이상 거주했던 동성마을은

8)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73, 『大邱市史』, 252~270쪽.

9)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73, 앞의 책, 252~270쪽.

10) 善生永助, 1933, 앞의 책, 524쪽.

【표 2】 1930년대 경상북도 달성군 소재 동성마을과 해당 성관<sup>10)</sup>

面名	姓貫	동성마을 수	面합계	面名	姓貫	동성마을수	面합계
성북면	인천 이	2	13	다시면	안동 손	1	12
	능주 구	2			영양 남	1	
	달성 서	1			동래 정	2	
	밀양 박	1			진양 정	1	
	경주 이	1			성주 도	1	
	익계 이	1			경주 이	1	
	전의 이	1			전의 이	1	
	동래 정	1			능주 구	1	
	순흥 안	1			김해 김	1	
	안동 김	1			평산 신	1	
	김해 김	1			파평 윤	1	
공산면	경주 최	2	10	구지면	추파 추	1	12
	인천 채	2			청주 양	1	
	단양 우	1			문화 유	1	
	김해 김	1			밀양 박	3	
	안정 나	1			전주 이	1	
	영천 이	1			경주 이	1	
	경주 이	1			파평 윤	1	
	동래 정	1			현풍 곽	1	
해안면	문화 유	1	11	전주 최	1	12	
	경주 최	1		김해 김	1		
	인천 이	1		서흥 김	1		
	영천 이	1		창녕 조	1		
	경주 이	1		옥산 전	1		
	성주 배	1		군위 방	1		
	달성 서	1		전체 합계	60		

다음과 같다.<sup>11)</sup>

11) 善生永助, 1933, 앞의 책, 541~555쪽.

성북면(동중, 동하); 달성 서씨  
공산면(해서촌, 해북촌); 인천 채씨, 경주 최씨  
해안면(해서부, 해동촌); 경주 최씨  
달서면(서중, 서하하); 김해 김씨, 김녕 김씨  
월배면(월배, 조암); 성주 이씨, 단양 우씨  
달성면(하수서, 수동, 수북, 수현내); 인천 이씨  
풍각면(수현내, 각이동); 평택 임씨, 밀양 변씨

위에서 제시한 대규모의 동성마을이 분포했던 지역을 앞의 【표 2】와 비교하면,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 등 3개 면은 동성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했을 뿐 만 아니라 대규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부 동성마을의 형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 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에서는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의 세 면을 중심으로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사결과와 조선후기에 작성된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을 통해 파악되는 동성마을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대구부 同姓마을 형성시기의 추이

1930년대 동성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던 善生永助는 전국의 동성마을 중에서도 특히 저명한 1,685개를 대상으로 그 발생 연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sup>12)</sup>

---

12) 【표 3】은 善生永助, 1933, 앞의 책, 조선총독부, 218쪽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표 3】 조선총독부가 파악한 동성마을 형성시기

道名	1431년 이전	1431~1630년	1631~1830년	1830년 이후	不明	합계
경기도	27	85	70	2	51	235
충청북도	10	43	31	2	48	134
충청남도	12	35	21	3	48	131
전라북도	15	26	22	·	29	92
전라남도	31	101	52	1	53	238
경상북도	36	110	44	4	52	246
경상남도	8	53	17	2	55	135
황해도	24	53	31	1	34	143
평안북도	7	25	·	·	7	48
평안남도	14	49	26	3	20	112
강원도	12	25	14	1	27	79
함경북도	11	29	4	1	18	29
함경남도	·	12	11	3	3	63
합계	207	646	351	23	458	1,685

【표 3】에 따르면, 동성마을의 형성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는 1431년~1630년경이었다. 즉, 조사대상이었던 1,685개의 마을 중 대략 1/3에 해당하는 646개의 마을이 15세기 전반~17세기 전반 사이에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17세기 전반~19세기 전반에 형성된 동성마을 수는 351개, 15세기 전반 이전에 형성된 동성마을 수는 207개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善生永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후기에 형성된 동성마을 보다 임진왜란 이전에 형성된 동성마을의 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부계적 친족질서가 이미 임진왜란 이전 시기인 조선전기부터 상당히 확산되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善生永助는 동성마을의 형성시기를 入鄕祖의 정착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善生永助는 동성마을을 형성한 특정 성관의 조상이 그 마을에 입향하여 정착한 시점을

동성마을이 형성된 시점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동성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입향조가 마을에 정착한 시점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에도 입향조의 정착시기와 동성마을 형성시기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풍산 류씨의 동성마을인 하회마을에 류씨가 정착한 시기는 15세기 초였다. 입향조인 柳從惠는 흥해 배씨인 裴尙恭과 함께 하회마을에 이주하였다. 이 시기는 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인 혼인관행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의 女婿, 外孫이 이주해오고 반대로 이들의 아들이 妻鄉과 外鄉을 따라 이거하는 등 출입이 빈번하게 반복되었다. 이러한 자녀와 외손의 출입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결과 16, 17세기에 작성된 하회마을의 『洞案』에는 풍산 류씨 이외에도 안동 권씨를 비롯한 타 성관들이 상당수 入錄되어 있었다. 물론 타 성관에 비해 풍산 류씨의 입록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다른 성관들의 족세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풍산 류씨가 하회마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회마을에서 풍산 류씨가 본격적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했던 시기는 적어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기에 이후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전반에 작성된 『동안』에는 풍산 류씨가 압도적인 비율로 등재되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안동 하회마을의 형성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입향조가 정착한 시점과 동성마을의 형성시점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향조의 정착시점을 기준으로 동성마을의 형성시점을 파악하였던 善生永助의 조사방법은 상당한 오류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조사되었던 동성마을 형성시기에

13) 정진영, 1998, 앞의 논문, 328~337쪽.

대한 이해를 상당 부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동성마을 형성시기를 파악하는 기준을 고려할 때 마을에서 특정 성관의 집거현상이 강해지고 타 성관에 비해 수적인 우위를 점하는 시기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혈연적 집거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표 3】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 중에서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동성마을 형성시기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된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1,685개의 동성마을 중 1/4을 상회하는 458개의 동성마을의 형성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의 조사가 입향조의 정착시점에 기준을 두었다는 점에서 458개의 마을은 특정성관의 집거가 이루어진 시기뿐 만 아니라 입향조가 누구인지 또는 입향조의 정착시기가 언제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자.

이상과 같이 1930년대에 진행된 동성마을 조사작업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유의하면서 대구부의 동성마을 형성시점에 대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세기 전반 달성군에서 동성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며, 동시에 대규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대표적인 지역은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 등 3개의 면이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후기 대구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조선후기 당시 성북면의 행정구역은 동중면·동하면이었으며, 공산면은 해서촌·해북촌이었으며, 해안면은 해서부·해동촌이 통합된 곳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대구부의 동성마을을 형성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1930년대 달성군의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에 해당하는 조선후기 대구부의 동중면, 동하면, 해서촌, 해북촌, 해서부, 해동촌 등 6개의 면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sup>14)</sup> 다음에서는 『경상도

14) 동중면, 동하면, 해서촌, 해북촌, 해서부, 해동촌은 각기 面, 村, 部 등의 명칭으로 구획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행정구

대구부호적대장』의 기록을 토대로 6개의 면에서 동성마을이 형성되어가는 추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특정 성관이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집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가의 문제를 일정한 수치로 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마을의 규모나 운영형태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한 마을에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거주하여 집거의 양상이 나타났던 마을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4】는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의 기록을 토대로 17세기 후반~19세기 중반 대구부의 동중면, 동하면, 해서촌, 해북촌, 해서부, 해동촌 등 6개 면에서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거주했던 마을을 집계한 것이다. 시기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17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작성된 호적대장을 대략 3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sup>15)</sup>

【표 4】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특정 성관이 한 마을에 10호 이상 집거하는 양상은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19세기 중반에 급증하였다. 17세기 후반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집거한 마을은 11개 마을이었는데, 18세기 중반에 15개 마을로 증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19세기 중반에 들어 26개 마을

---

역 내에는 하위행정구역으로 리가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에 준하는 동일한 행정적 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15) 현존하는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은 17세기 후반~19세기 후반에 걸친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면별로 현존하는 식년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료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식년을 선택하였다. 특히 18세기 전반부의 경우 분석대상 지역이 모두 현존하는 식년이 없기 때문에 동중면과 동하면은 1720년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기록을 이용하여 18세기 전반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은 분석대상인 6개 면에서 작성된 호적대장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외하였다.

【표 4】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집거한 마을의 추이

面名	姓貫	1684년	1717년	1747년	1789년	1825년	1858년
동중면	대구 서	1	1	1	1	1	2
	여흥 민	1	1	1	·	·	·
	인동 장	1	·	·	·	·	·
	김해 김	·	·	1	·	·	·
	우계 이	·	·	·	·	·	1
동하면	고부 은	1	1	1	1	·	1
	능주 구	·	·	1	1	2	2
	인천 이	1	1	·	1	1	4
	풍천 임	1	·	·	·	·	·
해서촌	경주 최	·	·	·	1	1	2
	김해 김	1	1	1	·	·	·
	문화 유	·	·	·	1	·	·
	인천 채	·	·	·	·	·	·
	밀양 박	·	1	1	1	·	·
	경주 이	·	·	·	·	·	2
해북촌	단양 우	·	·	1	1	1	1
	경주 최	·	·	·	·	·	2
	인천 채	1	1	1	1	1	1
	밀양 박	1	·	1	1	1	·
	창원 황	·	2	1	·	·	·
	김해 김	·	·	1	2	2	1
	영천 이	·	·	·	1	·	·
해서부	경주 최	·	1	·	·	1	1
	영천 이	·	·	1	1	1	1
	영월 엄	·	·	·	·	1	1
	대구 서	·	·	·	·	·	1
해동촌	문화 유	·	·	·	1	1	1
	남양 홍	1	1	1	1	1	1
	하빈 이	·	·	·	1	·	1
	경주 이	·	·	·	·	1	·
	경주 최	1	·	·	·	·	·
인동 유	·	·	1	·	·	·	
합계		11	11	15	17	16	26

로 급증하였던 것이다. 물론 특정 성관이 집거한 마을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동성마을의 증가를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 성관이 일정한 수치 이상으로 한 마을에서 집거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동성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후기를 경과하면서 혈연에 따른 집거양상이 매우 강해지고 있었으며,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더욱 확연해졌다는 사실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성마을의 형성여부와 별개로 혈연적으로 집거하려는 현상이 갈수록 강했었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한 마을에 지속적으로 집거한 성관이 있었던 반면 지속적으로 집거를 유지하지 못한 성관들도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동중면의 대구 서씨, 해북촌의 인천 채씨, 해동촌의 남양 홍씨는 17세기 후반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200여년에 걸쳐 한 마을에 집거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하면의 능주 구씨와 인천 이씨, 해서촌의 경주 최씨, 해북촌의 단양 우씨, 해서부의 영천 이씨 등은 18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집거하기 시작하여 19세기 중반까지 집거를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일시적으로 집거를 이루었지만, 이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 성관들도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중면의 여흥 민씨, 동하면의 고부 은씨, 해북촌의 창원 황씨 등은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까지 꽤 오랜 시간동안 집거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수의 호만이 남아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집거를 유지했다가 사라지는 성관들도 상당수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동성마을의 형성 여부를 판별할 때 집거가 시작된 시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집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시켜 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셋째, 한 마을에서 집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성관이 있는가 하면 집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근 마을로까지 집거를 확대시켜 나간 성관들도 있었다. 동중면의 대구 서씨, 동하면의 능주 구씨와 인천 이씨, 해

서촌의 경주 최씨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형성된 동성마을을 토대로 인근 마을로까지 族勢를 확대시켜 간 경우로 볼 수 있다.

넷째, 집거의 경향이 급증하였던 19세기 중반 무렵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집거한 마을은 26개 마을이었다. 19세기 전반에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집거한 마을이 16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0개 마을이 증가한 셈이다. 이들 10개 마을은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비로소 집거의 양상이 나타났으며, 동성마을로의 발전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앞의 【표 2】를 보면, 1930년대 성북면(동중면·동하면), 해안면(해서촌·해북촌), 공산면(해서부·해동촌)의 동성마을 수는 각각 13개, 10개, 11개로 총 34개였다. 19세기 중반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집거를 이루었던 26개의 마을을 모두 동성마을로 간주하더라도 1930년대에 이 지역에 분포하였던 34개의 마을 수와 비교하면 8개 정도가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의 동성마을의 상당수가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사실은 앞의 【표 3】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20세기 전반 입향조의 정착시점을 기준으로 동성마을 형성시기를 조사하였던 조선총독부의 보고에서는 1,685개의 동성마을 중 1/4을 상회하는 458개의 마을이 동성마을로의 형성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의 조사가 입향조의 정착시점에 기준을 두었다는 점에서 입향조가 누구인지 또는 입향조의 정착시기가 언제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동성마을은 어떤 마을들이었을까. 이 마을들 중 다수는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전반에 새롭게 형성된 동성마을이며, 여기에는 입향조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입향조의 정착시기가 모호한 평민들의 마을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부계 혈연에 따른 집거가 강화되었던

조선 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양상은 집거의 규모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5】는 【표 4】에서 검토한 마을 중에서 특정 성관이 19세기 중반까지 10호 이상 지속적으로 집거한 마을을 선정하여 특정 성관이 한 마을내에서 집거의 규모를 얼마나 확대해 갔는지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를 보자.

【표 5】 특정 성관이 10호 이상 지속적으로 집거한 마을의 戶數 변화

面名	姓貫	마을명	1684년	1717년	1747년	1789년	1825년	1858년
동중면	대구 서	산격리	24	38	59	89	98	86
		옥산리	·	·	·	·	8	10
동하면	능주 구	무태리	6	·	·	·	·	·
		(무태)서변리	·	6	11	20	36	30
		(무태)동변리	·	·	·	7	21	31
	인천 이	무태리	12	·	·	·	·	·
		(무태)서변리	·	12	7	10	23	49
		(무태)동변리	·	·	2	6	8	11
		도덕리	·	·	·	·	5	13
		연경리	7	7	2	3	6	13
해서촌	경주 최	지묘리	·	5	·	11	17	21
		대곡리	·	2	·	3	10	14
해북촌	단양 우	광리	·	·	·	11	18	28
	인천 채	미대리	17	12	25	26	18	29
해서부	영천 이	입석리	·	·	15	20	20	27
해동촌	문화 유	검사리	·	·	·	23	22	36
	남양 홍	대압리	·	17	10	12	14	19

【표 5】는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대구부의 6개 면에서 대표적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한 마을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표 5】를 통해 볼 때, 우선 한 마을내에서 특정성관의 집거 규모가 시기가 경과될수록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무렵~18세기 전반에 이미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동중면의 대구 서씨의 사례를 보

면16), 대구 서씨는 17세기 후반 동중면 산격리에서 이미 24호가 거주하여 수적으로 동성마을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대구 서씨는 이후 산격리에서 집거의 규모를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며, 18세기 후반 경부터는 90여호 내외가 산격리에 거주하였다. 나머지 마을에서도 집거를 이루었던 성관들의 집거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성관들이 한 마을에서 집거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동성마을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 이후 19세기 전반 무렵으로 여겨진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중면 산격리의 대구 서씨는 이미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무렵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성관들은 대체로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전·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동성마을을 형성할 만한 인적인 확대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6개 면에 분포한 9개 성관의 동성마을들은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동성마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1930년대에 조사된 이 지역의 34개의 동성마을 중 앞의 9개 성관의 마을들을 제외한 마을들은 대부분 동성마을 형성시기가 더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표 5】를 통해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동성마을을 형성한 일부 성관들은 다시 이웃마을로 거주를 확대해 갔다는 점이다. 동하면의 능주구씨의 경우, 18세기 후반 무렵 동하면 서변리에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이후 19세기에 들어서 이웃한 동변리로 동성마을을 확대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동중면의 대구 서씨, 동하면의 인천 이씨, 해서촌의 경주 최씨의 경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

16) 동중면의 대구 서씨는 달성 서씨와 동일 성관으로써 조선 후기 호적대장에는 대구 서씨와 달성 서씨의 성관명칭이 번갈아 쓰였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동중면의 행정구역이 달성군에 편제되면서 달성 서씨로 지칭되었다. 이 글의 주요한 분석대상 시기는 조선후기이기 때문에 대구 서씨로 지칭하였다.

조선 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한편, 【표 5】를 통해 확인되는 동성마을들은 19세기 중반 이후에도 계속 집거 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던 것으로 여겨진다. 1930년대 조선 총독부의 조사에서는 달성군 소재 동성마을 중 동일 성관이 50호 이상 거주한 저명한 동성마을로써 8개 마을의 구체적인 호수와 구성인원 수가 보고되었는데<sup>17)</sup> 이 가운데 4개의 마을이 위의 【표 5】에서 검토하였던 마을들이다. 따라서 이들 마을은 20세기 이후 동성마을 규모의 확대여부를 구체적인 수치로써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표 6】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대구부 4개 동성마을의 특정성관 戶數 변화

面名	마을명	姓貫	1858년	1931년
동중면	산격리	대구서	86	170
동하면	동변리	능주구	31	70
	서변리	인천이	49	115
해북촌	미대리	인천채	29	70

【표 6】을 통해 보면,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동성마을을 형성했던 4개의 마을이 이후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을 경과하면서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해 갔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동중면 산격리 대구 서씨는 86호에서 170호로, 동하면 동변리의 능주 구씨는 31호에서 70호로, 동하면 서변리의 인천 이씨는 49호에서 115호로, 해북촌 미대리의 인천 채씨는 29호에

17) 善生永助, 1933, 앞의 책, 472~473쪽.

18) 善生永助는 위의 4개 동성마을의 형성시점을 모두 300년전으로 판단하였다. 이 조사는 1931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생영조가 파악된 동성마을 형성시점은 1630년 무렵인 17세기 전반기이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한 바와 같이 위의 4개의 동성마을은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전반 이후에 동성마을로써의 면모가 갖추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 70호로 불과 70여년 사이에 2배 이상 호수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호적대장이 쏠인구를 기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4개 마을에서 특정 성관의 인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례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무렵에도 조선후기 동성마을을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부계적 친족질서가 여전히 강고하였으며, 오히려 동성동본 성씨집단의 동성마을로의 집중도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Ⅲ. 同姓마을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조선후기 대구부의 동성마을은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에 들어 형성된 동성마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거의 규모 역시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런데 동성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의 몇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지역 내 同姓同本 집단의 거주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동성마을로 집중되는 양상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속적인 집거를 통해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던 성관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집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사라지는 성관들도 발견된다. 셋째, 한 마을에 2개 이상의 성관이 공존하면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20세기 전반 무렵 대구지역에 분포했던 동성마을 중 상당수가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형성된 것이었고, 그 이전인 18세기 후반 또는

조선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19세기에 형성되었던 동성마을은 대부분 양반마을이었으나 일부 평민 동성마을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동성마을 형성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상의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표 7】을 보자.

【표 7】 특정 성관의 촌락집중도

面名	姓貫	구분	1684년	1717년	1747년	1789년	1825년	1858년
동중면	대구 서	동성마을 거주 戶數	24	38	59	89	98	86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1	7	5	8	15	21
		면내 全體戶數	25	45	64	97	113	107
동하면	능주 구	동성마을 거주 戶數	6	6	11	27	57	61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	1	·	·	·	2
		면내 全體戶數	6	7	11	27	57	63
	인천 이	동성마을 거주 戶數	12	12	11	19	42	86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7	5	·	·	·	·
		면내 全體戶數	19	20	11	19	42	86
해서촌	경주 최	동성마을 거주 戶數	·	5	·	14	27	35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	8	5	14	6	10
		면내 全體戶數	0	15	5	28	33	45
해북촌	단양 우	동성마을 거주 戶數	·	·	11	11	18	28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	·	5	11	8	12
		면내 全體戶數	0	0	16	22	26	40
	인천 채	동성마을 거주 戶數	17	12	25	26	18	29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1	12	4	11	6	5
		면내 全體戶數	18	24	29	37	24	34
해서부	영천 이	동성마을 거주 戶數	3	5	15	20	20	27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0	0	3	3	3	5
		면내 全體戶數	3	5	18	23	20	32
해동촌	문화 유	동성마을 거주 戶數	·	·	·	23	22	36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	·	·	11	7	7
		면내 全體戶數	0	0	0	34	29	43
	남양 홍	동성마을 거주 戶數	13	17	10	12	14	19
		면내 다른 마을 거주 戶數	2	·	1	2	1	1
		면내 全體戶數	15	17	11	14	15	20

【표 7】은 面内の 특정 성관이 동성마을과 면내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비중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면내 동성동본 집단의 동성마을로의 집중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특징적인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면내의 동성동본 집단이 동성마을의 형성을 전후한 시점에 동성마을로 거주를 집중하는 양상이다. 동하면 인천 이씨의 사례를 보면, 1678년 동하면 전체에 19호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12호가 무태리에 거주하고 나머지 7호는 면내 여러 마을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무태)서변리에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그들이 동성마을에 집거하는 양상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와는 다르게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이전부터 특정 마을에 집거하는 양상도 발견할 수 있다. 동하면의 능주 구씨의 사례를 보면, 아직 동성마을을 형성하지 못했던 1684년 당시 동하면에 거주한 호수는 6호에 불과하며 이들은 모두 한 마을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8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19세기 전반에는 서변리와 동변리에 2개의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다. 이 때 능주 구씨의 호수는 57호이며, 모두 2개의 동성마을에 집거하였다. 17세기 후반 소수에 불과했던 능주 구씨는 처음부터 특정마을에만 거주하다가 족세를 확장하여 결국 동성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웃마을로까지 동성마을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능주 구씨의 경우, 동성마을로 지역내의 동성동본 집단이 이주한 것이 아니라 100여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특정 마을을 기반으로 族勢를 확대시켜간 사례이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서부의 영천 이씨, 해동촌의 남양 홍씨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동중면의 대구 서씨와 해서촌의 경주 최씨는 동성마을이 가장 확대된 19세기 중반에도 면내 다른 마을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구 서씨와 경주 최씨는 조선후기 대구부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유력성관으로써 여러

개의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성관이 동성마을 외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많았던 것은 인근 마을로 동성마을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으로 보인다.<sup>19)</sup> 【표 7】을 통해 앞에서 여러 차례 확인하였던 동성동본 집단의 집거양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동성마을로 주거가 집중되기까지의 과정은 성관별, 마을별로 차이가 있었던 사실 역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성관의 지속적 집거와 집거규모의 확대는 동성마을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시적으로 특정마을에 집거를 이루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마을에서 사라지는 성관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예시한 것이 【표 8】이다.

【표 8】에서 예시한 첫 번째 사례는 동중면 산격리에 거주한 여흥 민씨의 경우이다.<sup>20)</sup> 산격리의 여흥 민씨는 1684년 12호, 1717년 16호가 거주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집거를 이루고 있었으나 동성마을을 형성할 수준에는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기 산격리의 인적 구성을 보면, 여흥 민씨를 제외한 타성관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성관은 대구 서씨였다. 앞의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 서씨는 산격리에서 1684년 24호, 1717년 38호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였다. 여흥 민씨와 대구 서씨는 제외한 나머지 성관들은 매우 다양하고 모두 소수의 호만이 거주하였다. 이러한 산격리의 인적구성을 통해 볼 때,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산격리에서는 대구 서씨와 더불어 여흥 민씨가 가장 주도적인 성관이었다. 그런데 대구 서씨는 이후 족세를 급격하게 강화하여 나갔고, 그 결과 18세기 중반 이후 산격리는 명실상부한 대구 서씨의 동성마을이 되었다. 반면 여흥 민씨는 18세기 중반 이후 족세가 약화되어 점차 산격리에서

19) 동성마을의 분화,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향후의 연구로 돌린다.

20) 여흥 민씨는 1684년에는 여주 민씨로 기재되었다가 18세기 전반 이후의 호적대장에는 여흥 민씨로 改貫하여 기록되어 있다.

【표 8】 集居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례

마을명	姓貫	구분	1684년	1717년	1747년	1789년	1825년	1858년
동중면 산격리	여흥 민씨	戶數	12	16	10	7	1	0
		타성관 戶數	69	115	159	207	164	124
		무성층 戶數	70	51	48	0	0	0
		마을 전체 戶數	151	182	217	214	165	124
동하면 (무태)동 변리	행주 은씨	戶數	18	31	19	14	0	0
		타성관 戶數	71	51	54	69	90	79
		무성층 戶數	121	30	32	20	3	0
		마을 전체 戶數	210	112	105	103	93	79
해북촌 능성리	창원 황씨	戶數	0	24	11	0	2	0
		타성관 戶數	36	37	26	44	34	38
		무성층 戶數	6	1	1	0	0	0
		마을 전체 戶數	42	62	38	44	36	38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동하면 무태리의 행주 은씨의 경우이다. 1684년 무태리에 거주한 행주 은씨는 18호로 마을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성관이었다.<sup>21)</sup> 1717년 31호, 1747년 19호가 기재되어 마을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무태리가 동변리와 서변리로 分洞을 한 18세기 전반 무렵에는 동변리를 행주 은씨의 동성마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을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점차 마을에 거주하는 호수가 줄어들다가 19세기 전반에는 완전히 마을에서 사라졌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한 점은 행주 은씨가 마을에서 사라진 19세기 전반 동변리는 능주 구씨의 동성마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동변리에서 행주 은씨의 비중이 줄어

21) 행주 은씨 역시 1684년에는 고부 은씨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18세기 전반 이후의 호적대장에는 행주 은씨로 改貫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드는 과정은 능주 구씨가 이 마을을 동성마을화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인 창원 황씨 역시 여흥민씨와 행주 은씨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18세기 전반 해북촌 능성리에서 동성마을을 형성했던 창원 황씨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의 3개 사례는 동성마을을 형성하거나 또는 특정 성관이 뚜렷한 집거를 이루었던 마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확대가 우선시되지만 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족적인 기반의 강화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동성마을로써 존립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사례들은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은 한 마을내에서 특정 동성동본 집단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력의 강화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와는 달리 한 마을에 2개 이상의 성관이 공존하면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표 9】를 보자.

【표 9】는 한 마을에 2개의 성관이 공존하면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동하면 서변리와 해서부 입석리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동하면 서변리를 보자. 서변리는 19세기 전반 무렵부터 능주 구씨와 인천 이씨가 공존하면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곳이다.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까지 서변리는 특별히 주도적인 성관을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이었다. 능주 구씨와 인천 이씨 역시 그 비중이 매우 작았음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점차 인적인 확대를 이루었던 두 성관은 19세기 전반 서변리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성관이 되었다. 여타의 성관은 소수의 호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서변리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을 경과하면서 여전히 능주 구씨와 인천 이씨가 공존하며 족세를 확대해 갔고, 그 결과 20세기 전반에

【표 9】 2개 이상의 姓貫이 하나의 同姓마을을 형성한 사례

面名	마을名	姓貫	1678년	1717년	1747년	1789년	1825년	1858년
동하면	(무태) 서변리	능주 구씨 戶數	6	6	11	20	36	30
		인천 이씨 戶數	12	12	7	10	23	49
		여타 성관 戶數	71	50	54	86	91	83
		무성총 戶數	121	53	53	20	5	0
		전체 戶數	210	121	125	136	155	162
해서부	입석리	영양 남씨 戶數	0	0	3	12	15	14
		영천 이씨 戶數	3	5	15	20	20	27
		여타 성관 戶數	15	41	19	36	38	44
		무성총 戶數	1	20	11	1	0	0
		전체 戶數	19	66	48	69	73	85

는 대구부에서도 규모가 큰 동성마을 중 하나가 되었다.

해서부 입석리의 사례도 동하면 서변리의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입석리 역시 18세기 전반까지 뚜렷하게 주도적인 성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18세기 중반 영천 이씨 15호가 거주하면서 가장 비중이 큰 성관이 되었지만 동성마을을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이후 영천 이씨는 꾸준히 호수를 확대해 갔고, 입석리가 매우 작은 마을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19세기 중반에는 영천 이씨의 동성마을이 된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영천 이씨와 더불어 영양 남씨의 인적인 확대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825년 영천 이씨와 영양 남씨의 호수는 각각 20호, 15호였으며, 1858년에는 각각 27호, 14호로 여전히 마을을 주도하는 2개의 성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동성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관이 여타성관을 배제하고 마을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2개 이상의 성관이 한 마을에 공존하면서 동성마을을 형성하는 사례를 모두 확인

조선 후기 대구부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성마을 형성과정에서 보여지는 배타성과 공존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혼인관계를 비롯한 마을내 성관사이의 관계 및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22)

한편,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에 형성되었던 대구부의 동성마을은 대부분 양반마을이었으나, 평민 동성마을도 일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의 【표 10】은 앞의 【표 5】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던 대구부 9개 동성마을의 계층구조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던 성관들의 계층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표 10】 동성마을을 형성한 성관의 계층구성

面名	마을名	姓貫	계층 구분	1684년	1717년	1747년	1789년	1825년	1858년
동 중 면	산격리	대구 서	상층호	18	30	57	88	97	85
			중층호	6	7	1	1	0	0
			하층호	0	0	0	0	0	0
			無記	0	1	1	0	1	1
			합계	24	38	59	89	98	86
동 하 면	(무태) 서변리	능주 구	상층호	4	6	9	20	33	27
			중층호	2	0	0	0	0	0
			하층호	0	0	0	0	0	0
			無記	0	0	1	0	3	3
			결락	0	0	1	0	0	0
	합계	6	6	11	20	36	30		
	(무태) 서변리	인천 이	상층호	3	11	6	10	23	48
			중층호	4	1	0	0	0	0
			하층호	0	0	0	0	0	0
			無記	0	0	1	0	0	1
합계			7	12	7	10	23	49	

22)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해서촌	지묘리	경주 취	상증호	5	0	0	11	17	21
			중증호	0	0	0	0	0	0
			하증호	0	0	0	0	0	0
			합계	5	0	0	11	17	21
해북촌	광리	단양 우	상증호	0	0	0	0	10	28
			중증호	0	0	0	11	8	0
			하증호	0	0	0	0	0	0
			합계	0	0	0	11	18	28
	미대리	인천 채	상증호	5	12	23	23	28	29
			중증호	12	0	1	0	0	0
			하증호	0	0	0	0	0	0
			無記	0	0	1	3	0	0
			합계	17	12	24	26	28	29
	해서부	입석리	영천 이	상증호	0	0	15	20	19
중증호				0	0	0	0	0	0
하증호				0	0	0	0	0	0
無記				0	0	0	0	1	1
합계				0	0	15	20	20	27
해동촌	검사리	문화 유	상증호	0	0	0	22	18	35
			중증호	0	0	0	0	0	0
			하증호	0	0	0	0	0	0
			無記	0	0	0	1	4	1
			합계	0	0	0	23	22	36
	대암리	남양 홍	상증호	0	10	9	11	14	18
			중증호	0	4	1	1	0	0
			하증호	0	0	0	0	0	0
			無記	0	3	0	0	0	1
			합계	0	17	10	12	14	19

【표 10】은 조선후기에 형성된 대구부 동성마을의 계층분조를 분석하기 위해 호적대장에 기재된 주호의 직역을 상, 중, 하층으로 구분한 것이다.<sup>23)</sup>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로 18세기 후반 내지 19세기 전·중반에 걸쳐 동성마을을 형

성시켰던 성관들은 1~2개 성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층적으로 상층에 속했다는 점이다. 일부 중층호가 확인되지만 동성마을이 형성, 강화되는 시점에는 모두 상층직역으로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마을내에 거주하는 동성동본 집단 모두가 중층호에 속했다가 동성마을을 형성한 시점에는 모두 상층호로 상승한 성관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해북촌 광리 단양 우씨는 18세기 후반부터 광리에 처음으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단양 우씨 11호의 주호는 모두 중층에 해당하는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집거를 확대해가기 시작한 19세기 전반에는 단양 우씨 18호 가운데 상층호가 10호, 중층호가 8호로써 절반 가량의 호가 상층호로 상승했다. 이후 동성마을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에는 단양 우씨 28호가 모두 상층호에 속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호적대장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계층적 질서를 반영하였던 호적대장상의 職役이 19세기 이후 호적대장의 현실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점차 현실의 사회계층과는 괴리가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sup>24)</sup> 19세기 중반 이후 호적대장에는 대표적인 양반 직역인 유학호가 지역에 따라 90% 이상을 점하는 곳도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작성된 호적대장은 상층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호적

23) 계층 구분의 기준은 김정란, 2003, 『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과악실대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2쪽 【표 2】를 참조·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상층: 前現職 관직자, 幼學, 진사·생원·출신, 원종공신, 통덕랑, 동몽, 급제 및 氏호칭 여성
- 중층: 가선대부, 통정대부, 절충장군, 전력부위, 충순위·충익위·충의의·충찬위 등 諸衛, 업유, 업무, 교생, 원생, 납속, 군관, 선무군관, 수첩군관, 양군관, 한량, 별무사, 별장, 향리(호장·기관·공생 등), 중앙 군사문 및 지방 영진소속·읍소속 군역자,역리, 역보, 武學, 양인, 잡색장인, 사령, 일수, 향청소리·소동·서원 및 姓·召史호칭 여성
- 하층: 공사천 노비, 고공, 사노검역자

24) 호적대장 연구팀, 2003,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에 기재된 직역을 근거로 계층관별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양 우씨의 경우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상층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의 계층구성으로 볼 때 평민층으로 보여진다. 즉, 해북촌 광리에 형성된 단양 우씨의 동성마을은 평민 동성마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에 형성되었던 대구부의 동성마을은 대부분 양반마을이었으나, 평민 동성마을도 일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조선후기 대구부 지역에서 가장 동성마을이 많이 형성되었던 6개 면의 동성마을 형성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20세기 조선총독부 조사에서 34개의 동성마을이 분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던 이 지역의 동성마을은 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형성된 마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9개 성관의 경우, 대부분 상층에 속하는 유력성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마을로써의 인적 요건은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 갖추어졌다. 이는 양반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새롭게 형성된 동성마을이 적지 않았으며, 평민 동성마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동성마을이 조선후기 부계적 친족질서의 최종적 귀결점이라는 일반적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대구부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성리학에 입각한 가부장적 부계질서가 뿌리내린 시점이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적 이해보다 더 늦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부계 중심의 친족질서로의 전환은 17세기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지역과 계층에 확산되었던 시점은 오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글의 분석대상이었던 대구부 지역의 경우에는 동성마을이 급증하고, 평민

충도 동성마을을 형성했던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전반기에도 여전히 부계적 친족질서가 강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조선후기적 가치인 가부장적 친족질서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 맺음말

同姓마을의 형성시기와 과정에 대한 분석 작업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부계적 가족질서가 조선사회에 확산되는 시점 및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상도 대구부 지역의 동성마을의 형성시기와 그 과정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식민지조선에 대한 다양한 기초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의 촌락과 성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사결과와 조선후기 호적대장을 통해 파악되는 동성마을의 분포실태를 대비함으로써 동성마을 형성시점 및 강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성마을이 분포한 지역은 경상북도였다. 경상북도는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대구부가 위치한 곳으로 1,901개의 동성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성마을이 주로 분포하였던 대구부의 농촌 지역은 1930년대 당시 행정구역이 대부분 달성군에 속해 있었는데, 달성군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동성마을이

많이 분포한 지역 중 하나였다. 20세기 전반 달성군에서 동성마을이 집중적으로 분포했으며, 동시에 대규모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던 대표적인 지역은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 등 3개의 면이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후기 대구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조선후기 당시 성북면의 행정구역은 동중면·동하면이었으며, 공산면은 해서촌·해북촌이었으며, 해안면은 해서부·해동촌이 통합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대구부의 동성마을을 형성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1930년대 달성군의 성북면, 공산면, 해안면에 해당하는 대구부의 동중면, 동하면, 해서촌, 해북촌, 해서부, 해동촌 등 6개의 면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후기에 형성된 동성마을 보다 임진왜란 이전에 형성된 동성마을의 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善生永助는 동성마을의 형성시기를 入鄕祖의 정착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동성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살펴 보면, 입향조가 마을에 정착한 시점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동성마을을 형성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향조의 정착시점을 기준으로 동성마을의 형성시점을 파악하였던 善生永助의 조사방법은 상당한 오류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조사되었던 동성마을 형성시기에 대한 이해를 상당 부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동성마을 형성시기를 파악하는 기준을 고려할 때 마을에서 특정 성관의 집거현상이 강해지고 타 성관에 비해 수적인 우위를 점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동성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혈연적 집거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조선후기 대구부의 6개 면의 동성마을 형성시점과 과정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역

내 동성동본 집단의 거주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동성마을로 집중되는 양상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속적인 집거를 통해 동성마을을 형성하였던 성관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집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사라지는 성관들도 발견된다. 셋째, 한 마을에 2개 이상의 성관이 공존하면서 동성마을을 형성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20세기 전반 무렵 대구지역에 분포했던 동성마을 중 상당수가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형성된 것이었고, 그 이전인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에 형성되었던 동성마을은 대부분 양반마을이었으나 일부 평민 동성마을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20세기 조선총독부 조사에서 34개의 동성마을이 분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던 이 지역의 동성마을은 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형성된 마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성마을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9개 성관의 경우, 대부분 상층에 속하는 유력성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마을로써의 인적 요건은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 갖추어졌다. 이는 양반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에 새롭게 형성된 동성마을도 있었으며, 일부 평민 동성마을도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왜냐하면 동성마을이 조선후기 부계적 친족질서의 최종적 귀결점이라는 일반적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대구부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성리학에 입각한 가부장적 부계질서가 뿌리내린 시점이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적 이해보다 더 늦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대구부 지역의 경우에는 동성마을이 급증하고, 평민층도 동성마을을 형성했던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전반기에도 여전히 부계적 친족질서가 강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조선 후기적 가치인 가부장적 친족질서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동성마을의 형성시점과 과정에 우선적으로 주목했기 때문에 형성과정에서 마을별, 성관별로 나타나는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양반촌과 민촌의 분화 및 차이, 嫡庶의 거주 분리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병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동성마을의 역사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 해명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향후의 연구로 돌린다.

## 참고문헌

### 1. 사료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 전산데이터 베이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善生永助, 1933, 『朝鮮の聚落』, 조선총독부.

### 2. 논저

김경란, 2003, 『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과악실태 연구』,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 논문.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73, 『大邱市史』.

오영교, 2004, 『강원의 동족마을』, 집문당.

호적대장 연구팀, 2003,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호적과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권내현, 2010, 「조선후기 평민 동성촌락의 성장」, 『민족문화연구』 5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수건, 1990, 「良洞의 역사적 고찰」, 『良佐洞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이해준, 1996, 「동족마을의 형성과 조직」,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정진영, 1998, 「조선후기 동성촌락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조선시대향촌사회사』, 한길사.

## Abstract

### A Review over the Time of Formation of Clan villages in Daegu prefecture in the late Joseon Period

- Centering on 『Household Register of Daegu prefecture,  
Gyeongsang Province』 -

Kim Kyung-ran

An analysis on the time and process of formation of clan villages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is a clue to identifying the time and process of spread of patrilineal kindred order based on Neo-Confucianism in Joseon society. In this sens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time and process of formation of clan villages in Daegu prefecture, Gyeongsang Province.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a lot of clan villages in Daegu prefecture were formed from the late 18th to the mid-19th century and that not a few clan villages were formed from the late 19th to the 20th century. It is very interesting that commoners' clan villages also began to be formed. In the light of general understanding that a clan village is the ultimate endpoint of patrilineal kindred order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case of Daegu prefecture suggests that patrilineal order based on Neo-Confucianism is likely to have been rooted in the overall society later than generally understood. It seems that, in Daegu prefecture,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when clan villages increased rapidly and also commoners began to form clan villages was a time when patrilineal kindred order was

most strengthened.

Keywords : Clan village(同姓마을), Household register(호적대장),  
Collective dwelling, Patrilineal, Family name and the  
place of origin(姓貫)

